

영어의 구조적 의미 조립 체계에 관한 교육언어학적 연구

초급 학습자를 위한 통사·의미·교육문법 통합 모형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2026년 5월

영어 문장의 의미 조립 모델: Core + Expansion

동사가 문장의 구조를 선택하고, 목적어·보어·수식어가 의미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예문 분석

The journalist wrote an article about politics yesterday.

S The journalist

V wrote

O an article

M about politics / yesterday

그림 1. 영어 문장의 의미 조립 모델: 주어·동사·보충어·수식어의 단계적 결합

초록

본 논문은 영어 문법을 개별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의미를 단계적으로 조립하는 구조적 언어 시스템으로 해석한다. 연구의 핵심 명제는 영어가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핵을 먼저 세우고, 목적어·보어·수식어·구·절을 결합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어순 중심 언어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어의 5 형식, 품사 체계, 구와 절, 시제와 상, 조동사, 수동태, 가정법,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 관사, 강조와 도치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여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학습할 때 겪는 핵심 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영어교육의 초점은 문법 항목의 암기가 아니라, 동사가 요구하는 구조, 명사의 지시성, 전치사의 관계 표시, 조동사의 화자 태도, 절 결합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데 놓여야 한다.

주제어: 영어 구조, 교육문법, 통사론, 의미 조립, 한국어 화자, 영어식 사고

Abstract

This paper interprets English grammar not as a collection of isolated rules, but as a structural system for assembling meaning. Its central claim is that English is an order-sensitive language in which the subject and verb establish the sentence core, while objects, complements, modifiers, phrases, and clauses progressively expand meaning. The study integrates sentence patterns, parts of speech, phrases and clauses, tense and aspect, modals, passive voice, conditionals, relative clauses, conjunctions, prepositions, articles, word order, emphasis, and inversion. It also contrasts English with Korean to identify major learning difficulties for Korean-speaking learners. The pedagogical conclusion is that English learning should move from rule memorization to structural analysis: what structure a verb licenses, how nouns are specified, how prepositions encode relations, how modals express speaker stance, and how clauses build logical meaning.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영어를 구조적 의미 조립 체계로 보기
 - III. 영어 문장의 핵: 주어·동사·목적어·보어·수식어
 - IV. 5 형식과 동사의 구조 선택
 - V. 품사, 구, 절의 계층적 작동
 - VI. 시제·상·조동사·태·가정법의 의미 기능
 - VII. 관계사·접속사·전치사·관사의 구조적 역할
 - VIII. 어순, 강조, 도치, 문장 확장
 - IX.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
 - X. 단계별 영어 구조 학습 로드맵
 - X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영어 학습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영어를 단어 목록과 문법 규칙의 집합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문법 사항을 분리해 암기하게 만들지만, 실제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영어 문장을 정확히 읽고 쓰기 위해서는 문법 항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 체계를 만드는지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은 영어를 구조적 의미 조립 체계로 규정한다. 여기서 “의미 조립”이란 단어가 문장에서 일정한 위치와 기능을 부여받고, 그 위치 관계가 주어·동사·목적어·보어·수식어의 질서 속에서 해석되는 과정을 뜻한다. 영어는 특히 어순에 민감한 언어이므로, 단어의 뜻만 알아서는 문장의 의미를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급 학습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어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되, 단순한 문법 요약을 넘어 영어 문장이 의미를 생성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전통문법, 교육문법, 현대 영어통사론, 기능언어학의 관점을 종합하는 개념적 분석이다. 특히 한국어 화자의 관점에서 영어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설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영어를 구조적 의미 조립 체계로 보기

전통문법은 영어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와 같은 성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왔다. 이 방식은 초급 학습자에게 여전히 유용하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은 문장 구조를 단순한 성분 배열이 아니라, 의미역, 정보구조, 담화 기능이 결합된 체계로 본다. 즉 문장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제하고 무엇을 새 정보로 제시하는가까지 포함한다.

영어의 구조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어는 기본적으로 SVO, 즉 주어-동사-목적어 어순을 중심으로 한다. 둘째, 동사는 문장의 핵심 구조를 결정한다. 셋째, 전치사, 관사, 조동사, 접속사는 명사와 절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영어 문법의 핵심은 “어떤 규칙을 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 문장은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위치 관계를 통해 의미가 만들어진다.

The analyst explained the policy to investors after the hearing.

그 분석가는 청문회 이후 투자자들에게 그 정책을 설명했다.

이 문장에서 The analyst는 행위자, explained는 동작, the policy는 설명의 대상, to investors는 수신자, after the hearing은 시간 배경이다. 영어는 이 관계를 주로 어순과 전치사를 통해 표시한다.

III. 영어 문장의 핵: 주어·동사·목적어·보어·수식어

영어 문장의 기본 핵은 주어와 동사이다. 주어는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동사는 그 대상의 행위, 상태, 변화, 관계를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매우 이른 위치에 등장한다. 이는 한국어와 큰 차이를 만든다. 한국어는 문장 끝의 동사가 의미를 완성하지만,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 문장의 골격을 빠르게 제시한다.

목적어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정체, 성질을 설명한다. 수식어는 문장의 핵심 구조에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시간, 장소, 방식, 이유, 조건, 양태 등을 덧붙여 의미를 확장한다.

She reads a book every night.

그녀는 매일 밤 책을 읽는다.

위 문장의 핵심은 She reads a book이다. every night는 반복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이다. 수식어를 제거해도 문장의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반대로 목적어 a book을 제거하면 read의 의미가 불완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분석에서는 먼저 필수 성분과 선택 성분을 구분해야 한다.

성분	기능	예문	해석
주어 S	문장의 출발점, 행위자 또는 화제	The student studies.	그 학생은 공부한다.
동사 V	사건·상태·관계를 조직하는 핵	The market changed.	시장이 변했다.
목적어 O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She wrote a report.	그녀는 보고서를 썼다.
보어 C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상태·정체 설명	He became a lawyer.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수식어 M	시간·장소·방식·이유 등 배경 정보	They met in Chicago.	그들은 시카고에서 만났다.

표 1. 영어 문장 성분의 기능과 예문

IV. 5 형식과 동사의 구조 선택

영어의 5 형식은 모든 문장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절대 법칙이 아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에게는 동사가 어떤 보충 구조를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교육적 도구로서 큰 가치가 있다. 핵심은 형식 번호가 아니라 동사의 구조 선택이다. 어떤 동사는 목적어 없이 완결되고, 어떤 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하며, 어떤 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 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요구한다.

영어 5형식의 구조적 기능

5형식은 암기 공식이 아니라 동사가 요구하는 보충 구조의 유형을 보여준다.

유형	구조	예문	의미 조립 원리
1형식	S + V	Birds fly.	주어와 동사만으로 사건이 완결된다.
2형식	S + V + C	She is kind.	보어가 주어의 상태·정체를 설명한다.
3형식	S + V + O	I read a book.	목적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4형식	S + V + IO + DO	He gave me a book.	수어·전달 구조: 누구에게 무엇을.
5형식	S + V + O + C	They made him leader.	보어가 목적어의 상태·정체를 설명한다.

그림 2. 영어 5형식의 구조적 기능: 동사가 요구하는 보충 구조의 유형

1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구조이다. Birds fly 에서 fly 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형식은 보어가 주어를 설명하는 구조이다. She is kind 에서 kind 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She 의 성질을 설명한다. 3 형식은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다. I read a book 에서 a book 은 read 의 대상이다.

4 형식은 수여·전달의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자주 나타난다. He gave me a book 에서 me 는 간접목적어, a book 은 직접목적어이다. 이 구조는 He gave a book to me 로 바꿀 수 있다. 5 형식은 목적어 뒤에

그 목적어의 상태나 정체를 설명하는 보어가 오는 구조이다. They made him leader 에서 leader 는 him 의 새로운 지위를 설명한다.

I found the argument persuasive.

나는 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이 예문은 5 형식이다. the argument 는 목적어이고 persuasive 는 그 목적어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이다. 한국어로는 “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처럼 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으나, 영어는 목적어와 보어를 나란히 배치하여 압축적으로 의미를 만든다.

V. 품사, 구, 절의 계층적 작동

품사는 단어의 고정된 이름이라기보다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다. work 는 동사로 쓰이면 “일하다”이고, 명사로 쓰이면 “일”이 된다. 따라서 영어 품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I work every day.

나는 매일 일한다.

My work is difficult.

내 일은 어렵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다. 동사는 문장 구조의 핵을 형성한다.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을 설명하거나 보어가 되어 주어를 설명한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공간, 시간, 추상적 관계를 표시한다. 접속사는 단어, 구, 절,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만든다.

단어에서 담화까지: 영어 문장의 확장 계층

영어는 단어가 구를 만들고, 구가 절을 만들며, 절이 문장과 담화로 확장되는 블록형 언어이다.



핵심 해석법

긴 문장은 먼저 핵심절(S+V)을 찾고, 나머지 구와 절이 어느 단어를 설명하는지 추적하면 된다.

그림 3. 단어에서 담화까지: 영어 문장의 확장 계층

구는 주어와 동사를 모두 갖추지 않은 단어 묶음이다. a very old house, in the morning, to study English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절은 주어와 동사를 가진 구조이다. that he is honest, when I arrived, who lives next door 처럼 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작동할 수 있다.

I believe that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믿는다.

The woman who called you is my professor.

너에게 전화한 그 여성은 나의 교수다.

I stayed home because it rained.

비가 와서 나는 집에 있었다.

첫 번째 예문의 that he is honest 는 believe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예문의 who called you 는 The woman 을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세 번째 예문의 because it rained 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절이다. 긴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절이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품사	구조적 기능	예문	해석
명사	사람·사물·개념의 이름	Democracy requires trust.	민주주의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동사	행위·상태·관계를 표시	Markets change.	시장은 변한다.
형용사	명사의 성질 또는 상태 설명	This is an important issue.	이것은 중요한 쟁점이다.
부사	동사·형용사·문장 전체 수식	He speaks clearly.	그는 명확하게 말한다.
전치사	명사와 다른 성분의 관계 표시	They met in Washington.	그들은 워싱턴에서 만났다.
접속사	논리적 연결	She stayed because it rained.	비가 와서 그녀는 머물렀다.

표 2. 주요 품사의 구조적 기능

VI. 시제·상·조동사·태·가정법의 의미 기능

영어의 시제는 단순히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 구분이 아니다. 영어 동사 체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이다. 이를 상(aspect)이라고 한다. 단순상은 사건을 하나의 사실이나 습관으로 제시하고, 진행상은 사건의 진행 중 상태를 보여주며, 완료상은 과거 사건과 현재 또는 특정 기준 시점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시제와 상: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영어 동사는 사건의 시간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도 표시한다.

	Simple 단순	Progressive 진행	Perfect 완료	Perfect Progressive 완료진행
Present 현재	I work. 나는 일한다.	I am working. 나는 일하고 있다.	I have worked. 나는 일해 왔다/일한 적 있다.	I have been working. 나는 계속 일해 오고 있다.
Past 과거	I worked. 나는 일했다.	I was working. 나는 일하고 있었다.	I had worked. 나는 이미 일한 뒤였다.	I had been working. 나는 계속 일하고 있던 중이었다.
Future 미래	I will work. 나는 일할 것이다.	I will be working. 나는 일하고 있을 것이다.	I will have worked. 나는 일해 둔 상태일 것이다.	I will have been working. 나는 계속 일해 오고 있을 것이다.

해석 포인트

현재완료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과거 사건의 현재적 관련성”을 드러내는 구조이다.

그림 4. 시제와 상의 구조: 시간과 관점의 결합

I lived in New York.

나는 뉴욕에 살았다.

I have lived in New York for ten years.

나는 뉴욕에서 10년 동안 살아왔다.

첫 번째 문장은 과거에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현재와의 연결이 약하다. 두 번째 문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어 번역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영어 구조에서는 현재완료가 현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표시한다.

조동사는 화자의 판단, 가능성, 의무, 허가, 추측, 정중함을 표시한다. can, may, must, should, would, could 는 모두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 He is right 와 He may be right 는 사실 명제의 강도가 다르다. may 는 가능성을 낮추고, must 는 추론의 강도를 높인다.

You must submit the report today.

당신은 오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You should submit the report today.

당신은 오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수동태는 행위자보다 영향을 받는 대상을 앞세우는 구조이다. 뉴스, 법률, 학술문체에서 수동태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행위자보다 사건의 대상, 절차, 결과가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Congress passed the bill.

의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

The bill was passed by Congress.

그 법안은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가정법은 현실과의 거리감을 표현한다.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house 는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는 전제를 포함한다.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을 표현한다. 따라서 가정법은 단순한 if 공식이 아니라 현실성, 가능성, 정중함의 거리를 조절하는 장치이다.

VII. 관계사·접속사·전치사·관사의 구조적 역할

관계사는 명사 뒤에 절을 붙여 명사를 설명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한국어는 “어제 만난 사람”처럼 명사 앞에서 긴 수식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지만, 영어는 The person I met yesterday 처럼 명사를 먼저 제시한 뒤 그 뒤에서 설명을 붙이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The book that you recommended was excellent.

네가 추천한 그 책은 훌륭했다.

이 문장의 핵심 구조는 The book was excellent 이다. that you recommended 는 The book 을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영어 독해에서 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핵심 구조와 삽입된 관계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접속사는 절과 절 사이의 논리 관계를 표시한다. because 는 이유, although 는 양보, if 는 조건, when 은 시간, while 은 동시성 또는 대조를 표시한다. 영어는 이러한 논리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Although he was tired, he continued working.

그는 피곤했지만 계속 일했다.

전치사는 영어에서 특히 중요한 관계 표시 장치이다. in, on, at 같은 전치사는 공간적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추상적 관계로 확장된다. in trouble 은 문제라는 상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이고, on duty 는 임무라는 상태 위에 올라타 있다는 은유적 의미를 가진다. at the center of power 는 권력의 중심이라는 지점을 표시한다.

관사는 한국어 화자에게 가장 어려운 범주 중 하나이다. 영어 명사는 대체로 셀 수 있는지, 하나인지 여럿인지, 특정한지 불특정한지, 이미 언급된 대상인지 처음 등장한 대상인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a lawyer 는 불특정한 변호사 한 명이고, the lawyer 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변호사이다.

I need a lawyer.

나는 변호사가 한 명 필요하다.

I need the lawyer I met yesterday.

나는 어제 만난 그 변호사가 필요하다.

관사는 단순한 작은 단어가 아니라 명사의 지시성과 담화 지위를 표시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관사를 공부할 때는 a, the 를 각각 “하나의”, “그”로만 외우지 말고, 정보가 새것인지 이미 식별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VIII. 어순, 강조, 도치, 문장 확장

영어에서 어순은 문법의 중심축이다. 한국어는 조사가 의미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영어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I gave him a book 과 He gave me a book 은 단어 일부가 비슷하지만 행위자와 수신자가 완전히 달라진다.

영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동사-목적어이며, 시간과 장소의 수식어는 보통 문장 뒤쪽에 붙는다. 물론 문체나 강조에 따라 위치가 변할 수 있지만, 기본 골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 안정성 때문에 영어는 어순을 일부러 바꾸면 강조 효과가 커진다.

It was John who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깬 사람은 바로 존이었다.

Never have I seen such a thing.

나는 그런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문장은 강조구문이다. John 이라는 정보를 특별히 부각한다. 두 번째 문장은 부정어 Never 가 문장 앞에 오면서 조동사 have 와 주어 I 의 위치가 바뀐 도치문이다. 도치는 일반 회화보다 문어체, 연설, 문학적 문체,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나타난다.

영어 문장은 핵심문장에서 출발해 수식어, 전치사구, 부정사구, 분사구, 관계절, 부사절을 붙이며 확장된다. 따라서 긴 문장 독해의 핵심은 모든 단어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핵심문장을 찾고 그 뒤에 붙은 확장 요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The journalist wrote an article about the election that changed American politics because she wanted to explain its deeper meaning.

그 기자는 그 선거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서 미국 정치를 바꾼 선거에 관한 기사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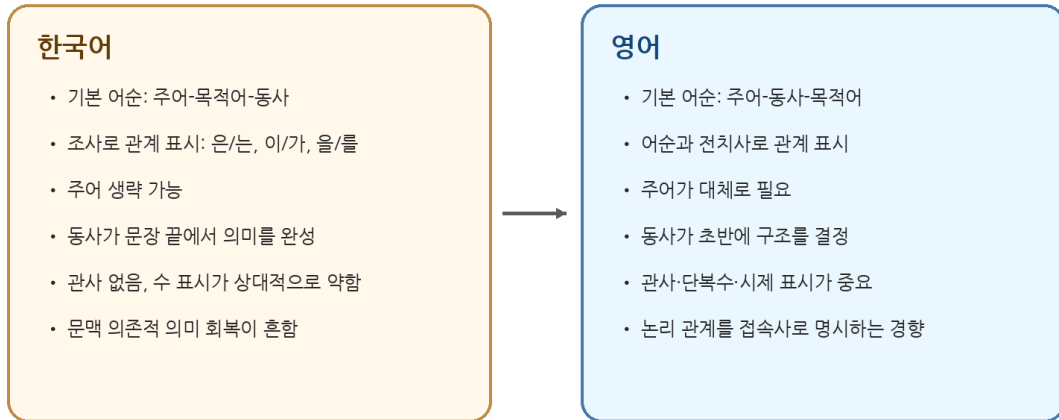
이 문장의 핵심은 The journalist wrote an article 이다. about the election 은 article 의 주제를 설명하고, that changed American politics 는 election 을 설명하며, because she wanted to explain its deeper meaning 은 이유를 설명한다. 구조 분석을 하면 긴 문장도 여러 의미 블록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IX.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단순히 단어 배열의 차이가 아니다. 두 언어는 의미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문법 관계를 많이 표시한다. 영어는 어순, 전치사, 관사, 조동사, 접속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

한국어는 조사-어미 중심, 영어는 어순-전치사-관사-조동사 중심으로 의미 관계를 표시한다.



예: “어제 만난 사람이 나에게 책을 주었다.”

The person I met yesterday gave me a book.

그림 5.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 조사-어미 중심 언어와 어순-기능어 중심 언어

한국어는 주어를 자주 생략할 수 있다. “갔다”, “먹었다”, “생각해 보니 맞다”와 같은 표현은 문맥이 충분하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영어는 대체로 명시적 주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It seems right, I think so, He left 처럼 주어를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는 긴 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반면 영어는 핵심 명사를 먼저 제시한 뒤 관계절이나 전치사구로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 차이 때문에 한국어 화자는 영어 문장을 쓸 때 명사 앞에 정보를 과도하게 몰아넣거나, 관계절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항목	한국어	영어
기본 어순	주어-목적어-동사	주어-동사-목적어
의미 관계 표시	조사와 어미	어순, 전치사, 조동사
주어	문맥상 생략 가능	대체로 명시 필요
동사 위치	문장 끝에서 의미 완성	문장 초반에서 구조 결정
관사	체계적 관사 없음	a/an/the 가 지시성 표시
수와 명사	복수 표시가 덜 엄격	단수·복수·가산성 중요
논리 연결	문맥 의존 가능	접속사·전치사로 명시 선호

표 3. 한국어와 영어의 핵심 구조 비교

X. 단계별 영어 구조 학습 로드맵

영어 구조 학습은 문법 항목을 무작위로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문장의 핵에서 확장 구조로 이동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 로드맵은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영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다.

단계	핵심 영역	학습 목표	대표 예시
1 단계	문장 뼈대	주어와 동사 찾기, 목적어와 보	The company announced a

		어 구분하기	plan.
2 단계	품사와 자리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	work: I work / my work
3 단계	구와 절	전치사구, 부정사구, 관계절, 부사절 식별	the policy announced yesterday
4 단계	시제와 상	시간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	I lived / I have lived
5 단계	조동사와 태도	가능성, 의무, 추측, 정중함의 차이 학습	may, must, should, would
6 단계	관사와 전치사	명사의 지시성과 관계 표시 체계 학습	a policy / the policy / in policy
7 단계	긴 문장 분석	핵심절을 찾고 확장 요소를 기능별로 분해	S+V+O + relative clause + adverbial clause
8 단계	영어식 사고	한국어식 순차 번역에서 영어식 구조 생산으로 전환	주어를 세우고 동사를 빨리 제시하기

표 4. 영어 구조 학습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이 로드맵의 핵심은 “핵심문장 먼저, 수식어 나중”이다. 긴 문장을 보면 먼저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가 요구하는 목적어 또는 보어를 확인한 뒤, 나머지 구와 절이 어떤 성분을 설명하는지 추적해야 한다. 이 절차가 반복되면 영어 문장은 더 이상 낯선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 체계로 보이기 시작한다.

XI. 결론

본 논문은 영어를 구조적 의미 조립 체계로 설명하였다.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핵을 형성하고, 목적어, 보어, 수식어, 구, 절을 결합하여 의미를 확장한다. 5 형식은 동사의 구조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모형이며, 품사 체계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시제와 상은 시간뿐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시하고, 조동사는 화자의 태도와 판단을 드러낸다. 수동태와 가정법은 정보의 초점과 현실성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 관사는 영어 문장의 논리적·관계적 의미를 조립하는 핵심 장치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어순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의미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문법 관계를 많이 담당하는 반면, 영어는 어순과 기능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영어 학습은 문법 규칙의 나열식 암기를 넘어,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조직하는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초급 학습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이론 용어가 아니라, 주어와 동사, 동사와 보충어, 명사와 수식어, 절과 절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보는 눈이다. 이 구조적 관점이 형성될 때 영어 독해, 작문, 말하기, 번역 능력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

참고문헌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Heinle & Heinle.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I.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 Huddleston, R., & Pullum, G. K.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Swan, M. (2016).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University Press.
Thorn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 Pearson Education.